

안녕하세요 ux/ui 디자인, 팀 프로젝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천성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개선하고 싶은 앱은 여행 준비의 모든 것, “트리플”입니다.
어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앱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트리플은, 한 마디로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관광지, 숙소, 맛집, 여행 경로 등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트리플이 추천해 줍니다.
사용자는 추천을 받아 항공권, 숙소, 티켓을 예약할 수 있고 이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나 체크리스트의 기능도 있어, 다른 앱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것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트리플은 여행지의 날씨나 지도, 교통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당연히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환율 변환, 현지어 번역 기능이 있어 외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용자들의 리뷰나 평점을 통해 서로의 여행 경험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많은 정보들을 반영해 자신의 일정을 직접 등록하고,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모두 혼자가 아닌, 여행을 같이 가는 일행과 같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분 40초)

기능도 많고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결과, 치명적인 단점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트리플은 가시성 및 편의성이 부족하고, 실제 여행자를 위한 기능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실시간 정보를 담지 못하며 앱의 일관성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분 10초)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은 홈화면입니다.
동그라미 일 번을 봐주세요. 하단 바에 국내-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구분이 초기 화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여행 계획 예약 카테고리과 여행지 추천 카테고리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실제로 앱을 이용해 여행 일정을 등록하면, 메인 화면에서 여행 일정의 버튼 크기가 매우 작아 편리하게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여행 일정이 정해지면, 항공권, 숙소에 대한 정보보다는 일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분 00초)

다음은 일정 계획 화면입니다.
우선, 같은 장소의 구글맵 상호명과 트리플 앱에 표시되는 상호명이 상이한 곳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행 경로를 수정할 때 다수의 일정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없게 되어 한번에 하나의 일정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하루에 하나의 일정만 등록할 수 있는데, 플랜 에이까지만 등록 가능하고 플랜 비는 등록할 수 없어 대안 계획을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짜놓은 일정의 장소 영업 여부를 보여 주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동선 기반으로 장소를 재배치해 주거나 일정을 짜주는 기능의 필요성과 이동 수단에 따른 소요 시간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분 50초)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이 앱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디자인 측면에서는, 메인 화면에서 하단바를 먼저 수정하고, 사용자의 앱 사용 흐름에 따라 페이지를 재구성하고 싶습니다.

앞서 피피티에는 없었지만 리뷰 작성 버튼과 리뷰 읽기 버튼 위치의 재조정도 필요하며, 여행 계획 및 여행지 추천 카테고리의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 측면으로는, 생성형 AI를 기반한 여행 일정 추천을 넣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장소간 이동 소요시간을 이동거리 옆에 가시화하고, 하루에 여러 개의 계획을 추가 가능하게 해 플랜 비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인터넷이 안 될 상황을 대비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면, 해외지역에서의 인터넷 통신 관련 변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일정을 한 번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의 추가가 저희가 생각한 트리플 앱의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4분 50초)

앞서 말씀드린 개선사항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